“고려가요 ‘동동’은 여수의 노래”

창작 배경된 지명 고락산 아래 동동골

전남대 김준옥교수 주장

우리나라 고려가요의 대표작품인 ‘동동’이 여수의 노래라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는 8일 전남대학교 문화사회과학대학에서 ‘동동이 여수의 노래’라는 주제의 학술제를 개최하고 동동의 기원과 관련한 다양한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전남대 김준옥 교수는 동동의 창작배경에 대해 장생포와 관련성에 주목하고 “장생포는 여러 문헌을 종합해 볼 때 여말 유탁과 그 군사들이 여수의 장생포에서 함께 즐긴 대중가요 곧 민요였을 것이며, 이 노래가 속악으로 채택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 교수는 장생포와 동동이 여수의 지명에서 따온 가명이라 확신하고 그 근거로 장성마을과 부근에 흩어진 장승, 고락산 아래의 동동골을 근거로 제시했다.

김 교수는 “‘장생포’와 ‘동동’의 창작 배경이 여수라는 사실은 그동안 여러 근거에 의해 밝혀졌는데 장성마을이 이제 정돈된 시가지로 변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동동이 여수를 대표하는 문화상품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동동 노래비를 세워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망마 경기장을 동동경기장으로 명칭을 바꿀 것” 등을 주장하기도 했다. 동동이 여수의 노래임을 알리는 기회로 활용코자 마련된 이날 학술제는 학술대회와 문화공연으로 진행됐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는 ‘동동’은 여수의 노래, 지역문화상품으로서의 문학비, 한국 음악속의 동동, 동동의 지역축제 연출 가능성과 그 개발방안 등에 대한 각각의 주제 토론이 열렸다. /강성훈기자 kangsw@

여수시 ‘무인카메라’ 수년째 방치

수천만원 들여 설치…여론에 밀려 사업 중단

수 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한 사업이 일부 여론에 밀려 수년째 방치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여수시는 지난 2003년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무인카메라 설치를 추진하다 주변 상인들의 반대 여론에 부딪쳐 사업을 중단한 채 수년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8일 밝혀졌다.

특히 시는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위해 이미 기초공사를 실시한 상태에서 시설을 방치하고 있어 무원칙한 사업으로 시민의 혈세를 고스란히 땅속에 묻어두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는 카메라 설치를 위해 2002년 예산을 편성하고 2003년 12월 설치업체와 7천여만원의 공사 계약을 맺었다.

당시 카메라 설치를 위해 중앙동 등 주요간선도로 5개 지역에 기본 배선설치 등 25%가량 공정을 진행시킨 상황에서 주변 상인들의 반대여론에 부딪히자 뒤늦게 공청회를 갖는 등 의견수렴에 나섰다가 사업을 중단하고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수시는 무분별한 불법주차 차량들로 인해 시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력 및 장비부족 등으로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주정차단속 무인카메라를 설치키로 하고 남산사거리에서 중앙동로타리 구간 등 5개소에 무인카메라 설치를 계획했었다.

여수시 관계자는 “단속의 한계 등으로 무인단속카메라 활용방안을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지만 일부 시민들의 반대로 추진되지 못했다”며 “시민들의 의견을 다시 수렴해서 재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강성훈기자 kangsw@

광양항 기름 유출 8일 오전 1시께 광양항 관리부두 앞 해상에 중질유 50여ℓ가 유출돼 여수 해경이 긴급 방제 작업을 벌이고 있다. 유출된 기름은 이날 오전 8시께 모두 수거됐다. /광양=김춘호기자 chkim@

/지역 단신/

광양항 철도 수송화물 30% 늘어

8일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에 따르면 올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광양항 철도 수송물량이 10만354TEU(TEU=20피트 길이 컨테이너)로 전년 대비 30.3%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8월까지 기록을 5개월 만에 경신한 것으로 이 같은 추세라면 연말까지 24만TEU 처리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철도 수송물량이 는 것은 경인지역 화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홍보마케팅 활동과 기름값 상승에 따라 도로 운송 부담이 커지면서 철도 이용이 그만큼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컨부두공단 관계자는 “광양항의 항만 물동량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철도 수송량도 계속 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광양=김춘호기자 chkim@

光州日報 지사안내

동부권		서부권		중부권·전북	
여수	653-8444	목포	276-9200	나주	332-5544
	(686-8584)	무안	452-8535	나주남부	334-6969
광양	792-8111	해남	534-5151	화순	374-4423
보성	853-9700	완도	554-6677	장성	392-7000
순천	746-8111	영광	351-1004	담양	383-8111
고흥	833-9900	신안	243-3758	영암	473-2340
녹동	842-2121	진도	543-0100	장흥	863-8822
구례	783-8111	강진	433-8355	광산	944-0444
곡성	362-8111	함평	324-8111	고창	564-1919
				순창	653-6155